第七千二百五十二號 (192[illegible]. 12. 21 第三種郵便物認可) (1946. 6. 18 許可番號第二十五號) (火曜日) 조선일보 THE CHOSUN ILBO 檀紀四千二百八十年一月十四日 【日刊】

朝鮮日報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電話 ② 三三八五 三三八四 定價 月 六十圓

社說

學生啓蒙隊員에게 (三)

一

우리 政界의 막달은 곧 左右兩思想의 對立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吾人의 所見으로써 하면 今日의 難關은 對立되는 두 個의 政治思潮가 併立해 있다는 事實 그 自體보다도 오히려 雙方의 相互不信에 더 큰 禍根이 있지 아니한가 한다。 웨 그러냐하면 特히 指摘할만한 멧 사람의 客을 除外하면 우리에게 지워진 特殊한 使命이오 또 共通의 任務인 建國이라는 大目標를 爲하여는 雙方이 서루 協力할 理由가 充分함에 不拘하고 事實은 이와 反對의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民族統一이 하나의 거짓 口號가 아니고 또 建國熱意에 缺한 바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도 理由는 없겠기 때문이다。 여기에 政界의 人間性 問題가 있고 政界淨化의 擧族的 課題가 있다。 民族을 팔어 私利를 圖謀하든 者와 口腹때문이라 하여 日帝의 사냥개 노릇을 하다가 한때의 履歷을 취들고 나와 一朝에 愛國志士로 豹變하는 것은 우습기도 하거니와 꿈에도 民族이라는 것을 생각해본 일조차 없든 謀利輩가 오직 黃金으로 이 陣營저 陣營에 秋波를 보내고 또 이 秋波에 適當히 장단을 마추는 部類가 있으니 하나의 雜音으로서는 너무 소리가 높고 하나의 政界裡面事情이라면 民族의 運命과 名譽에 關係되는 일이다。 官界의 濁流와 謀利輩의 跳梁은 果然 制度때문뿐인가。 産業經濟建設의 前途가 暗澹함은 資材難과 官廳의 施策不備에만 責任이 있었든가。 北朝鮮의 社會改革이 民衆全體의 歡迎을 못받는 것은 果然 改革自體에 對한 不滿으로만 분것인가、 南朝鮮에 있어서의 行政失敗의 責任은 오직 行政 그 自體에만 물일 것이였든가 여기에 우리 自體의 問題가 남는다。

二

우리는 解放과 함께 우리의 마음대로 建國에 또 突進하려했다。 그러나 여기서 두가지 難關에 부딛쳤으니 外部的으로는 美蘇兩軍政이였고 內部的인 것으로는 우리 自體의 人間性이라는 斷崖를 發見하게 된 것이다 政治에 挾雜이 있고 行政에 挾雜이 있고 學問에 挾雜이 있고 美德속에 挾雜이 있고 文化事業에 不純이 숨어 있는 限 우리에게는 革命도 改革도 아무런 意義를 가지지 못할 것이오 이런 基礎우에선 政治的 動向이란 또한 至極히 危險한 것일 뿐 아니라 民族全體의 運命에도 至大한 關係를 가지는 것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人間性 問題가 우리의 本質的인 樣相이라고는 決코 생각지 아니하며 그 歷史的이오 社會的인 所以然과 文物制度의 改革으로 그 一部分이 곳처질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萬一 同一한 社會的 條件下에서는 民族의 人間性이나 하는 問題는 아제나 저제나 남을 것이며 程度의 問題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問題이다 우리의 關心은 全혀 이 點에 있는 것이며 이 差의 問題가 오늘날 우리 民族 課題를 遂行하는 途程에 있어 絶對의 障礙가 되고 있다는 點에 그 重大性이 있는 것이다。

三

그럼으로 政爭보다도 먼저 必要한 것은 우리가 人間的으로 바루서는 일이며 이것은 우리 建國運動의 基礎的인 工事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大體 問題의 人間性에서 어는 面의 改革이 가장 緊急히 要求되며 그 根本的인 缺陷은 果然 어데 있는가 한마디로 써 하면 그것은 우리의 事物에 對한 態度에 誠實性이 不足하다는 點이오 目側面으로 말하면 너무 功利主義에 神經이 過敏하다는 點이다 어느 것이 그때에 내自身에 利로우냐 하는 것을 살피기에 그만 事物 그 自體에 忠實할 餘裕가 없는 것이다 다시한번 말을 바구면 우리는 純眞性에 있어 기피 反省할 餘地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긴 歷史에서 우리 民族의 참으로 誠實한 모습을 얼마든지 차즐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嚴肅해야할 이 歷史的 瞬間에 일으러 日帝에서 비저진 事誠不誠實을 淸算함이 없어 그대로 날뛰는 것은 이 무슨 輕薄한 짓이랴 學生으로써 하는 것이거나 其他 一般 社會에서 하는 것이거나 무릇 現下의 우리 啓蒙運動은 民衆에게 힘을 주고 事物에 對한 判斷能力을 가지도록 힘써야 한과 同時에 올은 일을 게 貫行할 수 있는 人間이 되게하는 基礎工事를 爲하여 劃期的인 一大運動을 展開시키는 것이 아니면 그 努力에 比하여 眞正한 收穫은 적을 것이다 써 直接啓蒙運動에 從事하는 자들이거나 이것을 計劃하는 政治團體 또는 文化團體의 一考를 促하는 바이다。

獨立路線의 開通希望
託治條項은 漸次理解
美朝鮮問題局長「윌」氏演說

【華盛頓十二日發AP合同】美國務省內朝鮮問題局局長「죤·윌리암스」氏는 太平洋問題研究協會講演會에서 朝鮮問題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現在蘇聯은 北朝鮮의 復興을 爲하여 如何한 政策을 遂行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美國으로서는 不遠間 南北朝鮮統一과 朝鮮의 完全自主獨立으로 向하는 路線이 開通될 것을 希望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朝鮮人에게는 自主獨立의 重責을 지고 이를 履行할 수 있는 期前에 解決하여야 할 許多한 難問題가 남어 있는 것만은 事實이다 이 許多한 難問題解決의 對策으로 朝鮮에 對한「託治」條項이 莫府決議事項에 包含되였든 것이다 朝鮮駐屯美軍及蘇軍兩司令官은 美蘇共同委員會再開에 對한 朝鮮人의 緊急要請을 받고 있는 때 이 趨勢가 充分히 進展되면 美蘇共同委員會再開와 同時에 兩國의 對朝鮮言約을 成立치 캘 根本的土臺는 構成될 것이다 그러고 過去에 있어서 朝鮮人은 往往「託治」條項에 猛烈히 反對하여 왔으나 最近에 이르러서는 이 條項이 좀 더 잘 理解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卽 壓制者 日本을 擊滅하는 데 있어서 許多한 犧牲을 다하여온 聯合軍은 莫府決定에 따라 다만 五個年 以內라는 一定한 期間에 限해서 信託統治하리라는 事實에 對하여 一般朝鮮人은 널리 理解하게 된 것이다 南朝鮮美軍政廳의 政策은 朝鮮人의 自主獨立을 助長하는 데 있는 것이다 美國務省側은 當初부터 美態度를 다음과 같이 表明하여 왔다 卽

(一) 美國은 朝鮮이 自主獨立國家가 될 것을 希望하고 있으며

(二) 美國의 朝鮮에 對한 助力은 朝鮮이 獨立할 때까지 繼續될 것이라는 것이다

朝鮮情勢改善없이
美蘇衝突繼續廻避難
美「웰스」前國務次官放送

【華盛頓十二日UP發朝通】「섬너·웰스」前國務次官은 今週의 定期放送에서 極東의 從屬民族問題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演說하였다 英國 和蘭及佛蘭西政府가 印度와 緬甸이 人民에게 獨立을 또한 印度支那人에게 自治를 賦與하기로

立議十次本會議

立議第十次會議는 十三日午後一時十分 七十三議員出席下에 續開되었는데 會議는 順序에 따라 그동안 出席치 않었던 徐東晞(官選) 申翼熙(서울市) 金度演(서울市) 廉廷權(官選) 議員及江原道代表徐尙俊 趙彰九 鄭肯敎三議員들의 正式署名捺印과 宣誓가 있은 後 第九次會議錄通過를 거쳐 連絡委員의 選定結果 委員長에 金乎 副委員長에 申基彦 委員으로서 李順鐸 河敬德 李一雨 金度演 金朋濬諸議員이 選出되었다는 金議長의 報告와「헬믹」軍政長官代理로부터의「少年勞働法」十四歲未滿兒童에 對한 勞役禁止의 條文外에는 全勞働法令制定을 立議에 一任한다는 聲明書朗讀이 있은 다음 各分科委員會報告에 있어서 産業勞働委員長未還의 經緯로 論議가 紛紛하다가 三時半에 休憩로 드러갔다 그러고 三時四十分부터는 九次會議에서 報告된 政治犯釋放에 關한 提案과 北朝鮮電力制限에 關한 緊急對策에 對한 提案及全州事件에 關한 對策等에 關하야 討議할 豫定이였다

▲提案

一、政治犯釋放에 關한 提案 本院은 解放以來 所謂政治犯을 釋放하야 政治刷新의 實을 擧하며 그들 多數의 民主戰士로 하야 하루바삐 獨立建國大業에 共同參加케 할 것을 決議함

朴建雄 姜 舜 黃鎭南 鄭伊衡 金 墩 申基彦 卓昌爀 金鶴培 廉廷權 呂運弘 文武術 李應辰 金若水

二、北朝鮮電力制限에 關한 緊急對策에 對한 提案

主文 北朝鮮蘇聯軍管下에 있는 電力의 發送制限으로 因하야 南朝鮮의 動力의 缺乏으로 모든 工場은 操業不能한 狀態에 빠저가고 있어 民生生活上 一大災厄으로 되여 있음으로 本院은 北朝鮮人民委員會와 南朝鮮美駐屯軍司令官「하-지」中將에게 交涉하야 右電力制限을 迅速解除하도록 極力推進케 할 것

安在鴻 金永奎 尹錫龜 嚴雨龍 宋鍾玉 許侃龍 黃甫性 崔鳴煥 李琮根

官選議員受諾與否 呂、張兩氏에 書翰

十三日의 立議本會議에 金奎植議長報告에 依하면 官選議員으로 指名된 呂運亨、張健相兩氏에 對하야「하-지」中將은 數日前 다음과 같은 內容의 書翰을 發送하였다 하는데 兩氏의 官議受諾與否는 一層注目되고 있다 한다

一月十五日以前으로 貴下들이 出席치 않이하면 이를 無效로 하고 補充任命하겠다

보석은 보옥장으로 寶玉藏

人事消息

△金奎明氏(加平驛驛長) △(輸)送協力會會長) △李泓奎氏(同副會長) △孫聖業氏(同) △申丁湜氏(同理事) △尹炳喬氏(朝鮮海陸運輸加平出張所長) △金近洙氏(加平面長) △李英濟氏(加平驛長) 十三日 輸送協力會組織人事來社

共委交涉聲明의 反響

十二日公報部에서 發表한 美蘇司令官間에 交換된 書翰內容에 對한 反響을 紹介하면 要旨는 다음과 같다

獨促國民會

지난 十二月二十四日附「하-지」中將이 共委續開에 對한「치스티야코프」上級大將에 回信한 內容은 朝鮮民族의 意思를 全然無視하였을 뿐만 아니라 朝鮮夕改로 美國의 威信을 墮落시키는 첫이다 信託管理問題는 美蘇兩國의 彼此勢力均衡上 必要로 提案된 것임을 잘 알고 있는 朝鮮民族은 美蘇兩國의 角逐場에 犧牲되어야 할 義務가 없을 뿐만 아니라 自主獨立을 渴望하는 朝鮮民族으로 內政干涉을 甘受할 理 없다 美蘇兩國의 政治理念과 目的이 根本的으로 相剋되고 있어 이로 因하야 朝鮮民族은 過去一年半동안 悲慘하게도 犧牲되여 왔으나 萬若 하-지中將이 果然 朝鮮獨立을 援助할 誠意가 있다면 當然히 朝鮮問題를 UN에 上程하자고 本國으로 建議함이 當然하였을 것이다 朝鮮의 愛國同胞는 信託을 前提로 한 共委는 絶對拒絶할 것이다

獨促靑年聯盟

一、韓國人의 託治에 對한 見解는 絶對不變이다 우리는 이를 끝까지 反對한다

二、聯合國은 朝鮮에 解放을 齎來하는 同時에 우리의 獨立은 國際的으로 公約된 것이다 따라서 莫府三相決定中託治條項은 國際公約을 完全히 履行치 못하고 全韓國民의 意思에 背馳됨으로 우리 民族全體는 決死코 이를 反對하였던 것이오 하-지中將도 이에 對한 우리 民族의 發言權을 保留하였더니 이며 끝까지 우리 民族의 自主的意思로 託治의 與否를 決定하도록 保障하였던 것이다

三、反託陣營에서 五號聲明에 捺印한 것은 이러한 託治에 對한 撰擇의 自由가 保障되였기 때문이요 決코 三相決定中託治까지 支持한다는 것은 안이어늘 하-지中將의 書翰內容第一項에 이를 三相決定을 全的으로 支持한다고 認定한다 함은 當時의 하-지中將聲明을 否認하는 것이며 우리의 自主的 意思를 拒否하려는 것이다

民統

民統宣傳部에서는 十三日 하-지中將의 共委妥協案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談話를 發表하였다

하-지中將의 所謂妥協案은 어데 自己가 主張하여오든 正當한 理論을 自己손으로 抹殺하고 朝鮮人에게 信託統治를 强要하는 蘇聯과 握手하여 朝鮮을 信託의 鐵鎖에 얼지메고 兩國이 干涉하므로써 兩國의 國際的摩擦을 避하고 列强干與의 李朝末年을 再演식혀 朝鮮을 國際奴隸化식히려는 國際謀略의 成功이다 自主獨立을 願하는 朝鮮사람의 絶對多數와 民族陣營의 諸團體는 信託을 前提하는 一切의 謀略機關에 參加하지 않을 것을 言明하고 朝鮮의 完全自主獨立을 爲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을 聲明한다。 美蘇共委가 一部少數의 反逆徒와 아부터 臨政을 組織한다는 것은 倭敵의 總督府가 우리의 政府가 아니든 것과 같이 傀儡以外의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이며 自主獨立을 願하는 朝鮮民族은 다시 過去의 鬪爭을 되푸리할 것을 覺悟하여야 할 것이다 美國側및 하-지中將의 우리民族全體를 爲한 從來의 好意와 信念이 變更된 것은 우리의 甚히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民戰

十三日 民戰에서는 美蘇共同委員會續開에 關하여 美蘇兩軍司令官間에 往復된 書翰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談話를 發表하였다

우리는 蘇聯側代表치스티코프將軍의 提案이 가장 正當하다고 支持한다 이에 한 하-지中將의 回翰에는 第五號聲明에 署名한 것은 모스코바決定을 全的으로 支持한 것으로 看取됨으로 署名한 政黨團體는 全部最初會議에 參加할 資格이 있다고 말하였다 眞心으로 이 決定을 支持하는 政黨團體만을 參加시킨 것이다

獨立勞農黨

託治가 實現될 可能이 없음은 이미 充分히 證明된 바이므로 그 問題에 關한 三相決議가 本質的으로 自然無効되었음에 不拘하고 關係各國이 그것을 强行하려 함은 政策으로 一誤再誤를 犯할 뿐 아니라 그들이 世界에 향하야 몇번이고 公言한 約束을 背反하는 것이다。 우리가 日本의 敗亡과 聯盟國의 勝利를 눈물로 祝賀한 것은 우리의 自由가 約束되었다는 것밖에는 아무 理由도 없던 것이다

全國學生總聯

(一) 去年十一月二十六日 北朝鮮蘇軍駐屯司令官 치스티야코프大將과 十二月二十四日附 南朝鮮美軍駐屯司令官 하-지中將의 交換書翰內容을 우리는 反對한다

(二) 一九四五年十二月三十日 하-지中將의 全國放送及美國務長官放送에 三相協定에 對한 解釋과 一九四六年四月二十日 하-지中將과 아-놀드將軍이 共委第五號聲明宣言書署名에는 贊反託의 言質이 없다는 聲明과 第二次美蘇共委決裂時의 하-지中將이 世界에 聲明한 韓國獨立에 對한 誠意는 今般書翰으로써 그 矛盾이 나타났다

울!・가명주의 ... 百中學 서울市蓬萊洞一街二〇 三新堂製藥社 電話本局②一三四二

古貴한 書籍을 求하실야면 大田府本町一丁目 文修堂書店

時計一流技術者를 求함 서울市鍾路三街六 天寶堂 白

家庭大福音 果實봉자를 多量高價로 買入하오니 家庭副業으로 製造希望者나 願買者는 右記로 來問하시요 東大門市場內 共益商會

頌 愛 戀 十五日까지 主演 文藝峰 朝鮮靑春名篇 明洞劇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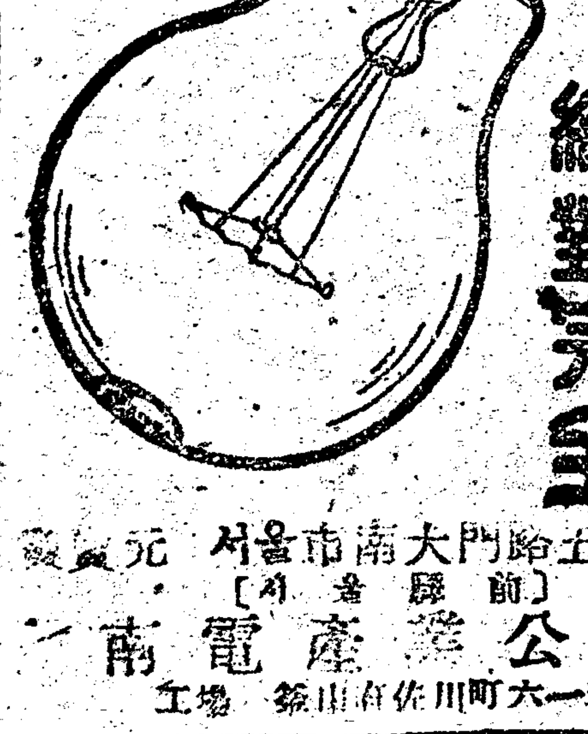
補缺生募集 第一部(晝間)一、二、三、四年 第二部(夜間)一、二、三年 各若干名 期日 一九四七年一月二十三日限 試驗 同一月二十四日 其他事項은 來問 서울市靑坡洞 善隣商業學校

外科・皮泌科 鄭權陽 內科・小兒科 朴榮緖 (火、木、土、午後) 張慶 X光線科 李富鉉 入院隨意 大同病院 黃金町入口・京電本社前 舊三浦外科跡 電話本局② 一八四八 一七二五

本經營主 故昔山盧聖錫氏 葬儀時에는 各界로부터 뜨거운 弔慰의 말씀과 아울러 많은 便宜를 돌보아주시와 感謝하여 마지 안습니다 今般 鄙社等은 陣容을 强化하고 內容을 擴充하와 一層 文化와 産業兩方面에 이바지하고저 하오니 倍前鞭撻하여주시옵기를 仰望하옵나이다 一九四七年一月十四日 博文出版社 大東文印刷所 博文書館 博文商會

演出 尹富吉 作 羅來 編曲 金炯來 笑門萬福來 全18景 新加入 玉簪花 金白姬 映畫 「사나히의 世界」 特作品 13日부터 午前11時開場 國都

星票電球



壽命長久 絕對完全 發賣元 서울市南大門路五街七五 [서울驛前] 南電産業公司 工場 釜山府佐川町一六一五

惡質官吏·謀利輩·反省하라

六百萬圓을收賄

配給物資를圍繞한暗躍相

부정관리 동여관과 모리배들이 결탁하야 협잡질로 배급된 물자는 몇다마를 건너서 무서울만치 빗싼값으로 서정에 흘르고있어 이로인한 전국도상의 경제혼란은 지금우리가 당하고있는 참담한 민생문제가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는바인데 물자배급의 관직을악용한 해방후 처음으로 큰 수회사건과 배급물을횡령한 부정관리 사건이 연속적으로 적발되어 큰 파문을 이르키고있다

즉 군정청상무국상무서(總務署) 관리 지모년의 재정보고 보통교육과의료계(衣料係)장으로있는 정명채(鄭明采)는 지난여름에 (三一)는 영어에능통 직원에게배급하겠다는이한까닭으로 상무부공무회사에서 유토 세계(世界) 고무국경제과(經濟課) 배급(?) 여자고무신六천켜레를 배급받어가지계장(配給係長)의일을 고 직원에게 단六백켜레만 배급한후 남어지를 모리배와결탁하야 가족수는 의 부에팔아 약六만천만원어치를 집어먹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여 검속취조중 이면에 군정청수사국에서 사법부로넘기였다 그녀물로써현금 六배만원을받어 동료 한사람과 노나가진사실 이탈로되여 수일전에배급받은 상인三명과함께 군정청수사국에 검거되여방금엄중한취조를받고있다

이전에상무부 직원은 十오만원의수회혐의로 사건이있어 수사국에서 용의자를 취조하여 수사중 증거가없어서 석방되었는데 이사건의 단서로써 전기정명채사건에 물로 단서를잡게된 수사국에서는 정명채의 집을 가택수색한결과 현금二백만원을 압수하게되자 일망타진당한 관계자는 수이일에이르러 범죄사실을자백하였다 한다 그리고 이사건에대해서 판로서는 정명채외한사람외에는 전연관련이없으나 상무부장오정수(吳禎洙)씨는 그가축을배급할때에 「싸인」을 한사실이있다하며 요새비난많은 소위 「쇠경도장」문제가 이사건을계기로 크게경고를 주고있다

고무신六千足 暗取引한官吏

여기에도 썩어진관리가있다 군정청 인사행정처(人事行政處) 총무

教育行政概要配付

문교부에서는 교육행정개요「教育行政概要」라는 통계일람표를발간하여 불원각도에배급하리라고한다 이책의내용은 각국과의 기구표 신구조선교육제도 一九四六 ... 국 고등교육국、편수국、성인교육국 교화국 관상국(觀象局)의상세한일람표이다 그리고 一九四六년 시월말현재의 학생총수 二백五십八만三천九백三십명이고 교원수는 四만八천九백三십九명이다

三八以南의學生數 二百五十八万餘名

문교부에서는 최근 교육행정의개요라는 책을 발행하여 지방배급을계획중인데 여기에 보면 해방전 一九四五년十二월말 현재 一九四六년 十월말 현재의 학생과 교원의총수는 다음과같다

	學生數	教員數
解放前	一、七二一、三四五人	二六、九四五人
一九四五、末	一、七一六、五四四	
一九四六、十月末	二、五八五、九三〇	四八、九三九

鄭明石氏辭任은 收賄와는別問題

상무부 공업국장(工業局長) 정명석(鄭明石)씨는 이번에사직하였는데 지금수사국에검거된 공업국수회사건과는전혀 관련이없고 오(吳) 상무부장과 의견대립으로 사직하였다한다

倭敵의魔手는依然

南方殘留同胞를救하자!

전쟁중에 소위 보도감시원등의 명목으로 왜적들에게 징발되어 남방으로 갔던 조선청년중 이미 남방각지에서 전쟁범죄자로 사형 기타의중형을 받은 가엽슨것도 많으나 아직도 미결중에 누구하나 구호해 주는이 없이 생사의 전도도 모르고 신음하고 있는것이 많은터인데 최근「성가폴」에서 돌아온 팔십삼명중의 정랑(鄭浪)씨가 전하는 소식에의하면 마래, 스마트라, 쟈바등지에만도 알천명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를변호하고 청당한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왜적들의 모략 음모에 농낙을받고 있는형편이어서 이들을 구하는길은 역시 국내동포의 여론을 연합국당국에 정당히 반영시켜야할것을 다음과같이 눈물겨웁게 말하고있다

戰犯公判에 辯護人을

포로감시원등으로있든 조선청년으로 연합국군정재판에 회부되여 이미판결을받은것도 미결중에있는것이 마래와쟈바、스마트라등지에 일천명이있는데 이들은그 자신들의범죄라할것이아니라 왜적들의재판에 종(범)인으로 법정에나서게되는데 왜적들은정부에서 파견된변호사단조사단통역등이 생가폴에만도 욱섭여명이와있어서 여러가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조건을만들고 있는 그들이자기네왜적의 범죄를 변호하기위해서 전(부)를 조선인에게 죄를 가씌히는일도 비일비재하고 심한일은 그곳신문에 조선인을 중상모함하는 책략을 쓰는일까지있읍니다 재판의경과에 는역군하고 부당한것도 있는데 한번은 고산신광(高山信光)이란 조선청년이 그성명이 비슷하야 당치않은 혐의로 사형판결을받었든것을 우리들이 루차 진정을한 결과 판결이 개월후에 무죄가된일도 있읍니다 지금문제는 어떠게 해서든지 「매아더」사령부를 통하야 조선서 변호사단이며 조사자단을 보내어 그들의 원조에 넘치는 원한을 풀어줄것과 우리 저곳 복역하는것을 본국에서 복역케할것도 교섭의 여지가 있을 겠읍니다 저곳감옥의 식당남은 대단합니다 아침저녁에 비스켓두개에 점심은물가든 강냉죽을 먹고있읍니다

終戰前부터 倭敵과抗爭

또 팔월십오일 전후의 사정을 보면 종전일년전부터 조선인군속이나 군인들은 벌서 비밀명령을 취하야 완전히 딴길을 생각하고 행동해왔든것입니다 쟈바에서도 조선군속이 기관총두대를가지고 일본군에 반항하야 이십명을 멸살식혔든일도 있는데 왜군과의충돌반항은 도처에 있었고 연합군도 장교를 파의 연락 비밀 탈출등이 많이있었읍니다 나는「섬라」(暹羅)에 있었는데 미리부터우리들은 그곳화교(華僑)와 연락을 취하여오다가 조선청년일본이항복하면서 지방단체와 그곳에집결 천삼백명이 한곳에 하였고 화교들의 감격에넘치는 동정도 받었읍니다 그런데 왜군들은 작전명령 一二七호의二항으로써 조선인군속군인들을 한곳에집결식혀가지고 국적불명의비행기로 폭격하려고하는게획도 미연에발견되였든것입니다 그동안에 조선청년중에는 탈주하여 비르마 월남 또 인도에 시시몽 목적지에 물어가 활약하는이도 적지않습니다 남방여러 군소민족들은 조선사람에게 동정하고있읍니다 그러고 간혹 왜병중에도 공판정에서 조선청년들에 대한 죄는 전혀 일본에 있는것이라고하는것을 보기도합니다 하나 전쟁이 끗나면서 조선청년들의 원한은 곳없이 폭발되였든것입니다 그동안 군속으로끌려 단니면서 가진치욕을 받으며 싸워온일도 있었지만 재생이 끗나면서 감옥안에서도 일본군수뇌자들에 대한 분한생각은 그대로 폭발되였든것입니다

忠武路에連絡所

이번 생가폴에서 모라온 청년들은 시내충무로(忠武路)이가 삼번지 명동(明洞)여관에 연락소를 두고 있다고 한다

加平驛輸送協力會發足

운수기능의 정돈(停頓)으로 사란두죽에 허덕이는 서울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치위를 면해주고저 경기도 가평(加平)에서는 관민협력하에 김규명(金奎明)씨를 중심으로 가평역수송협력사(輸送協力舍)를 조직하고 十三일 운수부와 절충한결과 운수부의 협력을 엇게되 라고한다

米穀收集六割六分達成

중앙식량행정처 十三일발표에 의하면 十三일현재 남조선미곡수집량은 총계一百八十八萬九千百十二石으로 목표량의六十六파ー센트에 달하였는데 각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忠北	一五四四〇石	八二%
忠南	四一〇三八	五七
全北	三三六三三	三九
全南	四八一三六	六四
慶北	四四七三二	七〇
慶南	三一九七〇	八八
京畿	三三九八二	六九
江原	一〇八二四	一九

豊德支署襲擊關係者等起訴

지난十월二十일 개성(開城)풍덕지서(豊德支署)습격사건관계자 八二명은 그간 지방검찰청에서 원택연(元澤淵)검찰관이 취조를 하여왔든바 十三일 드디어 이만환(李晩煥)외 四二명은 기소하였고 三九명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지中將에抗議

女性團體·女學生代表二百名이

美軍蠻行事件

앞서 호남선열차안에서 이러난 미군인의 조선부녀에대한 만행은 바야흐로 조선의 민족적분노의 선풍을 이르키고 있거니와 특히 부덕의 오랜전통에 살어오든 조선어머니나들의 격분은 드디여 그 절정에 달하여 十三일 十一시에 서울동회 각 부녀단체 여학생대표 二백여명은 모욕을당한 조선여성의 이름으 면 직접「하-지」중장을 맞나다」는 말에 일행은 하-지중장의 사무실이 있는 반도호텔로가서 경비대원들의 해산권고를 물리치고 「하-지」중장실로 드러가라 하였으나 대표자 한 드러와라는 미군측 요청에 따라 새로 한시경 부녀총동맹 위원장 유영준(劉英俊)씨는 민전남자대표 한명과 함께 일행의대표로「하-지」중장을 맛나 항의서를 제출하였다

사건의 범인미군인 四명은 지금대전(大田) 미군헌병대에서 취조를받고있다는데 十三일 공보부장이철원(李哲源)씨 말에 의하면 이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위해서 二십四군단C·I·C두명은 사건당시 현장에서 미군인의 만행을 목격처리한 운수경찰원 두명과 열차승무원 세명과 같이 十二일아침에 대전으로 떠낫다 한다

蠻行美兵四人은取調中

삼천만의분격을폭발식히고있는 조선부녀능욕

三百万圓모히 密賣者를逮捕

서울시을지로사가 一번지 이강상(二二) 효창동九五번지 오진(三四) 두명은 미군품모르히네(아편) 一九六九병을 움쳐다가 모상인을 암취인상대로 지난구일오후 七시 을지로사가 七○번지에서 약속대로 물품을 내노코보니 의외에 상대자는 장사치의 탈을쓴 수도청 형사이라 돈대신수갑을 내놋는 바람에 감쪽같이 봇들렸다 압수한 현품은 곳 보건후생부에 넘겻는데 시가 육집만말라 약 삼백만원어치라고 한다

藝術祭續演

十五日第一劇場서

조선문화단체총련맹 주최 제一회종합예술제는 지난 八일부터 중앙극장에서 막을열었는데 두반이나 투탄사건이있어 경찰의중지명령으로 그동안 상연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관계관청의양해를얻어 다시 十五일부터 十九일까지 제일극장에서 민족예술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속계키로 되였다는바 출연진(出演陣)도 더욱 충실 강화하여 예술제를 더욱 빛나게하리라 한다

新刊紹介

△改訂服裝術語 서울市鍾路區樂園洞三〇〇朝鮮服裝協會發行

▲朝鮮銀行統計月報八月分 서울市南大門路三街一一〇 朝鮮銀行發行

三千万心三千里一

扶安

扶安郡廳 / 扶安郡農會 / 扶安邑事務所 / 扶安面事務所 / 東津面事務所 / 幸安面事務所 / 上西面事務所 / 下西面事務所 / 山內面事務所 / 茁浦面事務所 / 保安面事務所 / 舟山面事務所 / 白山面事務所

扶安公立國民學校 / 扶安公立國民學校 / 東安公立國民學校 / 幸浦公立國民學校 / 上西公立國民學校 / 下西公立國民學校 / 山津公立國民學校 / 茁山公立國民學校 / 保安公立國民學校 / 舟川公立國民學校 / 白城公立國民學校 / 扶山公立國民學校 / 茁山公立國民學校 / 上安公立國民學校 / 東西公立國民學校 / 邊山公立國民學校 / 幸安公立國民學校 / 柳西公立國民學校 / 古安公立國民學校 / 白山公立國民學校 / 舟山公立國民學校 / 保安公立國民學校 / 下西公立國民學校

扶安郡山內面鎭西里(熊淵島) 南鮮鹽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金應泰

第八區警察署 署長 趙東豪 總務課長 陳良洙 公安課長 申鼎薰 搜查課長 金振弘

扶安邑內仙隱里 扶安酒造株式會社 社長 辛泳瓚 專務取締役 辛泳哲 常務取締役 辛雙根 電話一五番

全北扶安邑 扶安映畫劇場 劇團無名劇場 電話二六番

扶安專賣署 署長 李哲洙 外職員一同

全羅北道食糧事務所 扶安出張所

扶安邑內西外里 三山製材所 電話三二番

新韓公社扶安農場

全北扶安邑南上洞 國定教科書指定販賣 圖書雜誌文房具 扶安書房 電話六一番

扶安邑化隱里 朝鮮生活品營團扶安工場

全北扶安邑 扶安金融組合

扶安郵便局長 李競來 外職員一同

扶安郡幸安面三千里 三和精米所 朴幸棟

扶安邑內西外里 時報堂時計店 朴仁基

扶安邑內 최흥洋靴店 崔一明

扶安邑扶安中學校隣 金銀鍾打棉工場

全北扶安邑 南鮮電氣株式會社 扶安派出所主任 韓忠錫

扶安體育會

扶安邑內 姜熙燮

扶安邑南上洞 朝鮮日報扶安支局 支局長 辛 總務 金 記者